

기획 특집

■ 21세기 사회·문화 분야의 7가지 거대 변화

- 기술혁신의 영향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들이 등장할 것임
 - 새로운 시간-인간 관계 : 인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는 사회 공통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설계한 시간에 따라 밤낮 구분 없이 활동함
 - 새로운 이념적 갈등 : 국가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민족 중심 이데올로기 발흥
 - 비대칭적 인구 구조 : 청소년층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하여 인구구조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청소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커짐
 - 정치 형태 변화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 실현 가능
 - 학교 교육 제도 변화 :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에 비추어 고등학교는 조만간 사라지고 청소년의 사회 진출이 조기화될 가능성이 큼
 - 유목민적 생활 방식 보편화 : 지구의 어느 곳이든 수없이 이동하면서 활동하고, 이동하면서 의사 결정하며,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 생활이 보편화
 - 종교와 과학의 화해 : 종교는 사라지지 않으며, 지금까지 대립해 왔던 종교와 과학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공통 분모를 찾는 과정이 모색될 것임
- 시사점 : 새로운 변화를 빨리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조직이나 개인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21세기 사회·문화 분야의 7가지 거대 변화

이 글은 21세기에 나타날 21가지 주요 변화에 대한 기획 연재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특징적인 변화를 정리한 것임

□ 21세기 사회·문화적 변화의 특징

- 사회·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혁신임
 - 특히 정보통신혁명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사회 생활 및 문화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그런데 변화의 내용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변화가 충돌하면서 공존하거나 경쟁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임

□ 사회·문화 분야의 7가지 거대 변화

- 새로운 시간-인간 관계 : 시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한다
 - 20세기에는 철저히 시간의 제약을 전제로 사회와 문화 생활이 이루어져 왔음. 즉 일출(日出)과 더불어 노동하고, 일몰(日沒) 후 귀가하며, 계절에 따라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그 계절에 특유한 문화도 생겨났음
 - 그러나 21세기에는 일출, 일몰, 계절 등 사회 공통의 시간에 종속된 생활은 해체되고, 개인이 설정한 시간에 따라 생활하고 활동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것임. 즉 개인에 따라 밤과 낮 혹은 계절에 관계없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때, 혹은 일해야 하는 시간대에 일하게 됨
 - 인터넷으로 인한 전세계의 실시간 연결, 24시간 편의점과 24시간 중계 방송의 등장은 이러한 시간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통용되는 '인터넷 시간'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고 있음
- 새로운 이념적 갈등의 등장 : 국가 중심주의 보다 민족 중심주의가 발흥한다
 - 20세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 의식 아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형성하여 왔음

- 그러나 21세기에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경계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그 대신 각 민족별 혹은 인종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유고 연방의 붕괴와 인종간 내전 격화를 통해 보듯이 국가주의보다 민족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비대칭적 인구구조 :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유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다

- 20세기에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많은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했으므로 출생률이 매우 높았으나, 21세기에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사회의 노령화가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잡을 것임
- 이 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피보호자인 고령층의 비중이 보호자인 청장년층 및 유년층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 출생률이 저하하고 젊은 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인구층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를 통해 인구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교육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임

- 정치 형태의 변화 : 직접 민주주의가 부활한다

-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는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실행되었던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부활할 수 있게 될 것임
- 정보통신혁명 덕분에 소수만이 접근 가능했던 정치 정보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임
-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국회의원이나 정부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학교 교육체도의 변화 : 고등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 청소년들은 1세기 전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빨리 사회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독립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21세기에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현재의 대학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대대적인 개혁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

기획 특징

- 현재 거의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정신적 성장, 숙련의 습득, 다양한 지식의 획득을 방해하고, 오히려 평준화되고 획일화된 지식을 강요하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
- **생활 방식의 변화 : 정착생활보다 유목민과 같은 이동 생활이 보편화될 것이다**
 - 정보통신 및 교통 수단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나 일하는 방식은 특정 사무실이나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고착되지 않음
 - 집은 서울에 있지만 생활의 1/3은 미국에서, 또 1/3은 유럽에서 보내고, 국내에서 생활은 나머지 1/3로 채우는 생활이 정착되어 갈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들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작업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에 따라 정착생활보다는 이동생활이 보편화될 것임
- **종교와 과학의 화해 : 종교는 사라지지 않으며, 종교와 과학간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 20세기까지만 해도 종교와 과학은 상호 화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대립되어 왔으나, 21세기에는 과학과 종교가 상호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협력하며 양쪽의 성과를 서로 수용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과학은 종교가 제기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종교는 과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과학의 성과를 판단하는 가치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사회·문화적 변화의 파급 효과

- 21세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용하고 적응하느냐가 기업 조직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uri.co.kr ☎724-4046